

# 文대통령 지지율 62%...6주째 하락

### 국방장관·기무사령관 진실공방에 靑악제 당대표 경선 민주당, 하락세 멈추고 '상승'

민생 불안과 최저임금 논란으로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국방부의 '기무사 문건 진실공방' 때문으로 더욱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취임 6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을 주중집계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9%p 내린 62.0%로 나타났다. 6주째 하락세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오른 32.8%로 나타났다. '모름 및 무응답'은 0.5%p 감소한 5.2%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관련 "경제·민생 악화 불안감과 최저임금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이 승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간의 진실공방으로 비화하며 논란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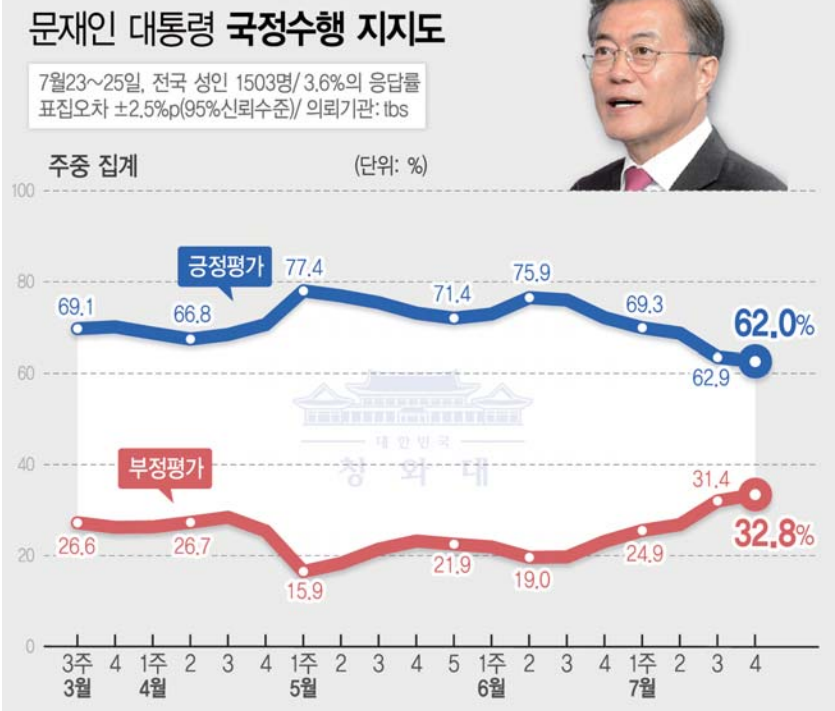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이 확산된 지난 20일 문 대통령 일간 지지율은 64.5%로 60%대 중반을 유지했

다. 그러던 중 지난 24일 승영무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문건 보고 방식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3.5%로 하락했다. 송 장관과 이 사령관의 진실공방이 확대된 지난 25일에는 일간 지지율이 61.4%로 하락했다.

국방부가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환시하면서 청와대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으로 심화된 민생 불안도 지지율 장기 약세로 작용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당대표 경선에 접어들어 더불어민주당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1.7%p 오른 45.1%를 기록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자유한국당은 0.4%p 상승한 18.7%로 2주째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노화찬 원내대표 사망으로 충격에 빠진 정의당은 0.1%p 오른 10.5%였다. 정의당은 노 의원 사망 당일인 지난 23일 일간집계에서 9.5%를 기록했다가 이튿날 10.2%로 지난 25일 11.0%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은 1.4%p 오른 7.7%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5%p 떨어진 2.7%였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23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194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3명이 응답을 완료, 3.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지난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 박지원 “송영무 장관 중심 잘 잡아야”

### “장관 흔들어 물러난다면 국방개혁은 물 건너 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 기무사령부 추 인사가 진실공방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장관을 그렇게 흔들어서 장관이 물러간다면 이 나라 국방개혁은 물 건너 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데 지휘 계통을 무시한 것이다. 기무사를 완전하게 개혁하고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송영무 장관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국방위가 국방부와 기무사를 상대로 진행한 현안질 의에서는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계엄문건 보고 당시 상황에 대해 엇갈린 답변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이 불거진 바 있다.

박 의원은 기무사 계엄문건 논란과 관련해 “기무사의 문건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내란·반란 음모”라며 “지금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허물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민주평화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유성엽 의원이 2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회에서 당 대표 출마의 변을 밝혔다.

## 유성엽 “흘러간 물이 다시 들어온다”

### “유능한 새 간판 필요...‘당명만 빼고 모든 것 바꿀 것’

민주평화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유성엽 의원은 26일 “흘러간 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자신과 같은 당의 경쟁자인 정동영 의원을 동시에 겨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 전당대회에서 나서지 말아야 할 분들이 나서고 있다”면서 “민주적인 결정으로 새로운 간판을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미 흘러간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면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봐야 새 아침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패한 리더십이 아닌 참신하고 유능한 새 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흘러간 물이 정동영 의원이나 는 질문에 대해 유 의원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서도 다른 당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을 겨냥했다.

그는 “평화당은 변화가 필요하다. 당명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한다”면서 “케케묵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당, 경제정당, 민생정당, 민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서 평화당을 경제정당, 민생정당으로 만들겠다”면서 “투명한 회계보고와 공정한 당내인사, 정치적 민생탐방, 상황식 정책결정 등을 통해 당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집권 2년차 민생 ‘빨간불’에 다급한 청와대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으로 증폭된 민생 빨간불에 청와대가 다급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민생문제 해결 부족을 이유로 국정수행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세다.

새 정부 출범 효과와 외교안보 이슈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경제 현안이 집권 2년차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민생 수습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 전반적인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

소아대 정국에서 아랍은 문재인 대통령의 ‘힘치 내자’ 제언에 경제 정책 수정 등을 요구하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 일선으로 ‘민생’을 내세우며 경제 심판 공세를 예고했다.

장관 인선과 국회 인사청문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각종 국정과제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경

제 정책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청와대가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고심하는 부분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청와대 조직개편 첫 단추로 경제 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하며 사실상 경제

제 정책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신임 비서관은 학자나 관료 출신이 아닌 현장 전문가로 내정한 상태다.

청와대는 다음달부터 업무추진비 결제 카드를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고, 결제대금 회수는 1~2일 빠른 직불카드로 바꾸기로 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 바로미터’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이면서, 정부 구매카드 종류를 바꿀만큼 절박한 직접 밝혔다. 청와대 공식 발표 이전에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직개편 일부 내용을 알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금주 중 지역업

비서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임 비서관은 학자나 관료 출신이 아닌 현장 전문가로 내정한 상태다.

청와대는 다음달부터 업무추진비 결제 카드를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고, 결제대금 회수는 1~2일 빠른 직불카드로 바꾸기로 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 바로미터’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이면서, 정부 구매카드 종류를 바꿀만큼 절박한 직접 밝혔다. 청와대 공식 발표 이전에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직개편 일부 내용을 알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금주 중 지역업

**조직개편 1순위 경제분야·참모진 전격 교체·지역업 비서관실 신설**

**민생 해결 부족 평가와 최저임금 인상 논란 장기화에 지지율도 흔들**

**靑 적극적 대응하는 모양새...현안 직접 설명과 대책 연쇄 발표 예고**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

Drawing 이호동